

아는만큼 흥겨워라 '풍류 음악회'



박인수 교수



박정경 원장



국립남도국악원은 올해 '2025 해설이 있는 풍류 음악회'를 펼친다. 이전 국악원이 선보였던 '해설이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은 알아야 할 지식이 나 용어 등 장벽이 많다. 요즘들어 관람 편의성을 높이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해설을 집목한 '책 처 콘서트'가 각광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해설형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이 오는 3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도군 옥주골 창작소에서 '2025 해설이 있는 풍류 음악회'를 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기획으로 한국전쟁과 음악, 남미와 민속 탐험 등 다양한 주제로 짜여져 있다.

강연의 문은 3월 12일 '민요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으로 연다. 민요의 생명력과 가치를 조명하는 내용이며 경인교대 음악교육과 김혜정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이어 26일에는 국악원 박정경 원장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우리문화, 굿 이야기'라는 주제로 무속 신앙에서 김홍화복을 빌던 '굿'을 이야기한다. 박 원장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국립국악원(장악과·국악진흥과 등), 국악원 장악과장 등을 역임했다.

4월 16일에는 박명화 작가와 함께 '리듬 속 단맛: 진도와 남미의 민속탐험'을 통해 진도와 남미의 민속 및 이야기를 들려준다. 같은 달 23일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우리 전통춤'은 춤 이론가 김영희가 출연한다.

국립남도국악원, 렉처 콘서트 국악 공연에 인문학·해설 접목 3월 12일~6월 25일 매월 2회 탈춤·전래동요·한국전쟁 음악 등 국악 지식·경험 공유 '소통의 장'

5월 7일 강의는 모형오의 '우리 땅 아이들 노래 전래동요'로 채워질 예정이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팀장을 역임한 모 씨는 동요 '조각난 달님', '아기노래'를 작곡한 바 있다.

5월 21일에는 박인수가 '탈춤의 선: 잊혀진 의미'를 통해 우리 전통극 '탈춤'을 조명한다. 강의에서는 탈춤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돌아보고, 그중에서도 '선의 미학'에 깃든 아름다움을 찾아 나선다. 고려대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박인수 교수(한예중 연희과)가 강단에 선다.

이어 6월 11일에는 송현민의 '악기 소리 따라가니 '진도'의 문화가 보인다!'가 펼쳐진다. 남도문화정수인 진도에 초점을 맞춰 음악 작품을 살펴보는 자리로, 강연자 송현민은 동시대 비평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예술 평론가다.

끝으로 6월 25일에는 6·25전쟁 75주년과 맞물려 '한국전쟁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처절했던 전쟁 당시 민족의 상흔을 치유하고 한의 정서를 승화시켰던 것이 바로 우리 음악이다. 해설을 맡은 이경본은 마르부르크대에서 음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로파간다와 음악' 등 저서에서 비극사와 음악을 분석했다.

국악원 박정경 원장은 "모든 공연에는 국악단의 소규모 공연이 곁들여지며 시청각 자료도 활용해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며 "전문가 및 유명 인사를 초청해 국악에 대한 지식, 경험을 공유하고 관객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관람, 회당 30명(미취학아동 제한 운영).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비평은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

백애송 시인, 평론집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말' 펴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탐구하는 매개체로 시는 가장 유용한 장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를 통해 당대 직면해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시인이자 평론가로 활동하는 백애송(사진)이 평론집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말(감는사람)'을 펴냈다.

두번째 평론집에서 그는 시에 대해, 시인들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는 매일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재조명하여 변화를 촉진한다"는 말에서 시의 보편적 정의, 아니 문학의 고전적 정의인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 연상된다.

시인으로 평론가로 연구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글쓰기를 하고 있는 저자는 이번 책에서 비평에 대한 사유를 풀어놓는다. 그가 상징하는 비평은 작품에 대한 해설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자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수렴된다.

저자는 "문예지에 발표하였던 원고들을 모아 보았다"며 "최선을 다해 시를 들여다보려 하였던 그 순간순간을 여기에 담고자 했다"고 출간 배경을 언급했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자유시를 탐색한다. 박미산론, 김병학론, 임희숙론 등의 글을 만날 수 있다. 2부는 정형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시에 대한 평론에 초점을 맞췄다. 이우걸, 문무학, 김미진, 황순희, 김태경, 김현장, 김수환, 박현덕의 작품들이 지닌 정형시의 매력과



시조의 현대성을 사유하고 이야기한다. 3부에서는 그동안 발표한 계간평들을 모았다. '타인의 세계, 일상의 삶에서 찾은 서정적 사유' 등의 주제를 풀어낸 글들이 수록돼 있다.

백 평론가의 이번 평론집은 시인의 관점, 비평가의 관점, 연구자의 관점, 가르치는 자의 관점 등 언어를 매개로 펼쳐지는 다양한 영역의 시각들이 복합적으로 투영돼 있다.

그는 "작품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고 이해해보고자 했다"며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측면에서 전달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와 메시지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광주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은 2016년 '시와 시학'에 평론을, 같은 해 '시와 문화'에 시를 발표하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우리는 어쩌다 어딘가에서 마주치더라도', 연구서 '이성부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 비평집 '트랜드 포에트리, 틈의 계보학' 등을 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성들 사회 참여 현황과 성과 공유

광주여성가족재단, 오늘 기관담당자 실무협의체 간담회



지난 '기관담당자 실무협의체 간담회' 진행 모습.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성주류화(性主流化)'는 여성이 사회 주요 분야에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사회 체계가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95년 베이징 제4차 UN세계여성회의에서 공식화되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채택 및 이행되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기관담당자 실무협의체 간담회'를 19일 오후 4시 재단 회의실에서 연다.

성주류화 전문 기관인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지역 7개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다. 협의체는 7개 기관(시청, 5개 구청, 교육청)의 성평등정책 담당 부

서 팀장 및 주무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광주 성주류화정책의 성과를 공유한 뒤,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 이아승 연구원이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법 및 방향성'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이번 간담회는 성주류화 전문 기관인 광주성별영향평가센터가 주축이 돼 기관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성주류화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생산된 정책들이 향후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영화 1편 평균 관람료는 '9702원'

영진위 2024 결산...극장·스크린·관람 횟수 팬데믹 후 첫 감소

지난해 영화 1편을 보기 위해 관람객 1명이 실제로 낸 돈은 3년 만에 90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관에서의 평균 관람 횟수와 극장 수, 스크린 수도 코로나19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4년 한국영화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관 관람권 전체 매출액을 전체 관객 수로 나눈 값인 영화관 평균 관람 요금은 9702원으로 전년(1만80원)보다 3.8% 하락했다.

관람객은 작년에 영화를 보기 위해 멀티플렉스 3사의 주말 일반 영화 성인 관람권 정가(1만5000원)의 64.7%만 실제로 지불한 셈이다.

2020년 8574원이었던 평균 관람 요금은 2022년 1만285원까지 상승했다가 2년째 하락했다. 90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9656원) 이후 3년 만이다.

영진위는 해외영화의 약세로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특수상영 관람이 줄었고 할인 프로모션 등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보는 관객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한국 국민 1인당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횟수는 2.40회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15회로 줄었다가 반등해 2023년 2.44회까지 증가했으나, 작년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아울러 작년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극장 수는 570개로 전년보다 0.5%(3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스크린 수는 3296개, 좌석 수는 43만 7975개로 각각 2.2%(75개), 5.6%(2만5960개) 줄었다.

극장 수와 스크린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20년에 이어 4년 만이다. OTT 활성화 등으로 미디어 환경과 영화 소비 행태가 변화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마항로 903-6(오목리9)